흔적만 남고 없어진 교회 다시 세우기

(고린도전서 4:1~5)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흔적만 남고 없어진 교회 다시 세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흔적만 남고 없어진 교회 다시 세우기”

고린도전서는 흔적만 남고 내용적으로는 없어져버린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고린도전서가 2000년 교회사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뿐입니다. 다만 몸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분할된 모임을 지역교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 2000년 교회사 속에 있었던 모든 모임들이 진짜 교회였느냐를 물어보게 하는 의미 있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볼 때 처음에는 분쟁과 분파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말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문화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분쟁과 분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교회

다움이 사라져서 내용적으로는 교회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대해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일종의 못마땅함이나 포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칭할 때 보통 너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굳이 자연인을 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2차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마음가짐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는 2장 1~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본문 1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비밀”과 내용상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전도 여행은 주후 5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자연인과 똑같은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호칭 자체는 포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인들의 인격이 영성 제로의 상태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만 남고 내용적으로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판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부터 평가가 나타나고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

회의 교회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아닌 내부의 분쟁과 분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이라고 부를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 교회 다시 세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교회가 되게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타스(ὑπηρέτας)는 전함(전투를 하는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로마의 호민관인 친구의 모략으로 벤허의 집안이 망하고 벤허는 전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로마 군인이 북을 치면 수십 명의 노예들이 그에 맞추어서 노를 젓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전함에 비유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가 승리하도록 노를 젓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함에 비유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과 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언제나 다른 소속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싸운 것은 사람들을 당신 안에 태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세상을 빠져나가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이란 노를 저어서 사람들에게 전함인 그리스도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전함을 타게 해서 세상에 속해 있던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천국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전함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전함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앞에 노를 저어서 들이미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전함 삼아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은 전함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심각했던 이유는 세상과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싸움이란 다른 소속 간에 일어나야 하는데 같은 소속인 사람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 소속과 세상 소속의 싸움이 되어야 했는데 천국 소속의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가 천국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뿐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올라타서 하늘에 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모였더라도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난 것이고 교회는 내부의 분쟁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흔적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의 고린도 교인들을 일반인과 똑같다는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부르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전함을 들이대는 노를 젓는 노예라 칭합니다. 노를 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전함을 들이댈 것이니 올라타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란 집안의 일을 맡아 돌보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전함을 올라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인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 배타적인 있음과 절대 배타적인 좋음입니다. 절대 배타적이라 함은 곧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마음 채움을 위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에 사는 77억 명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수많은 것들만을 있다고 느끼고, 그 있음의 빛 아래에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를 발동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은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채움을 위한 좋은 것이 아닌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이 비밀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맡아서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존재감 아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지라도 그 대답은 틀리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배타적 있음과 절대 배타적 좋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 전함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전함을 들이미는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함을 들이댑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전함에 올라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배타적 유일한 있음과 좋음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의식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있음을 죽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유일한 있음인 하나님의 있음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좋음 이외의 모든 다른 좋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접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기초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기초를 다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전함에 올라타기와 그리스도 전함에 올라타서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음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시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아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시 세울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인격의 핵심인 마음의 상태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소망하는 욕구 작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있어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일꾼은 신실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한 임금만을 섬기는 신하의 자세가 아닙니다. 조

선 건국 때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면서 정몽주에게 신하가 될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하자 선죽교에서 살해합니다. 정몽주는 마지막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πιστός)는 믿을만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곧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입니다. 피스토스(πιστός)의 명사형인 피스티스(πίστις)는 그 자체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믿을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는 곧 전함이신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올라타는 것을 끊임없이 혼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상태에서만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지 않은 배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장사입니다. 진정한 일꾼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배의 노를 저어서 다른 사람을 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을 향해 스스로 전함이신 그리스도를 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전함이신 그리스도를 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있음에 대해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음에 대해 마음의 소망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이 분명하다면 신실한 것입니다. 일꾼에게 이러한 신실함이 없다면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실한 일꾼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올라타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타지 않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관객을 향한 해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옛날 바이킹들이 타고 있던 배가 전시되어 있는데 해설자가 그것을 설명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는 일꾼이라면 먼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올라타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신실함입니다. 이 세상의 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대통령 앞에 있어도 대통령의 존재감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낍니다. 돈 문제가 발생해도 돈의 존재감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건강의 존재감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 있어야만 스스로 하나님의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좋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실함에도 위기와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세상과 싸우러 오신 전함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승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늘의 비밀을 갖게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한편 이렇게 전함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노를 젓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들에게도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위기가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전함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 일꾼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있음과 좋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일꾼은 간섭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아도 언제나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 소속을 빠져나와 하늘에 소속될 준비를 늘 합니다. 이러한 신실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일반인과 만나면 그로부터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신실한 일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노를 저으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라는 전함이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리스도를 제시받은 사람들이 전함이신 그리스도에 올라타게 되고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두 사람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전함에 또 한 사람이 타면 세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한 사람이 타면 네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작업에 대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은 돌출됩니다. 그 있음과 좋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전함에 올라탄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부족함을 논하며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 전함과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로 나뉘어서 모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는 없어진 것입니다. 교인에서 일반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다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1~2절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 곧 “이제 일반인이 되어버린 교인들아,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2절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 전함에 올라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없이 신실함을 유지할 것이니 다시 전하는 그리스도의 전함에 올라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판단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분별과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판단이 곧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곧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재판해야 될 사건을 하나님도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정의는 마음이 그리스도 전함을 올라타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단만 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임이 교회여야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면 이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파에 휩싸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아무도 없었기에 교회도 없어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는 곧 성도 각 개인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교인들의 모임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패한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면 이미 교회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흔적만 남은 교회는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전함을 노 저어서 다시 처음부터 들이밀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라는 배를 올라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노를 저어서 들이미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이 있어야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전함에 올라타는 신실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유지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흔적만 남게 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종교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두드러지고 우선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으로서 교회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의 역사로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종교개혁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지금 다시 세워진 교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시 세우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시 세우기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 전함에 올라타서 머물러야 하는 신실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실함은 우리가 일꾼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필요

한 것이오니 우리의 죄악 됨을 고려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